사랑 대신 사냥, 기쁨 대신 중독

(이사야 53:4~9)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랑대신 사냥, 기쁨대신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랑대신 사냥, 기쁨대신 중독'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원(Paradise)'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대상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며 무역을 합니다. 이렇게 사막을 가로지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낮에는 40~50도를 넘나드는 죽음의 더위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막을 삶의 현장으로 삼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낙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황에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한편 '사랑'이라는 단어도 홍수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의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함입니다. 사랑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 우리는 무지합니다.

사랑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산물입니다. 이 사랑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랑 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려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되심 안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사랑의 필요성만을 느끼기에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메시아의 수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특산물인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53장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말씀인 것에 비하여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53장에 나타나는 단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고, 질고, 슬픔, 찔림, 상함, 허물, 죄악, 징계, 채찍, 평화, 나음 같은 단어들을 두루뭉술하게 넘겨버립니다. 이 단어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고는 슬픔을 말하고 이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이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또한 허물 때문에 찔리심이 징계이며 그 결과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는 병을 말합니다. 병이 우리의 죄악이며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상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두 가지 군을 대표하는 허물과 죄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히브리어로 반역을 의미하는 허물과 연관이 되는 단어군은 간고, 슬픔, 찔림, 징계, 평화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뒤틀림을 의미하는 죄악과 연관이 되는 단어군은 질고, 상함, 채찍, 나음입니다. 즉 53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게 된 은총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내게서 나타나는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창조원리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중독현상입니다.
그리고 죄악은 비틀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보다도 나에게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내 몸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회하고 비켜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비틀림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죄

악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연관된 허물 즉 반란과, 마음의 사랑과 연관된 죄악 즉 비틀림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허물과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효용을 발휘할 때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삼위일체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대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귀중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관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고,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의 마음에 계실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 대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짝사랑이 아니라면 상대방 마음에도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안에서 생성되는 사랑은 담는 것이고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삼위일체의 특산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삼위일체 안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배우자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담긴 배우자의 모습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보면 배우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마음에 정확히 무엇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실망이나 당황함이 있고 배신감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자녀를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담긴 자녀의 모습은 실제 자녀와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비닐봉지 안에 담긴 고양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맞은편에 앉아계시는데 비닐봉지가 부스럭대며 자꾸 움직입니다. 나중에 보니 고양이가 들어있었는데 발톱으로 비닐봉지를 할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마음에 들여놓으면 반드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이 생

깁니다. 내가 마음에 담은 대상과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녀를 들여놓았지만 마음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괴로움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맹수를 사냥해서 우리에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전한 의미에서 담고 담기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돈을 담아도 밖에 있는 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돈은 10억으로 100억으로도 키울 수 있는데, 실제로 밖에 있는 돈은 10만 원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연히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인간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사냥이 됩니다. 고양이를 담고 사자를 담고 표범을 담은 것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고 할퀴고 고민하게 합니다. 마음에 담는 사랑은 결코 사람과 사람 혹은 세상의 대상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성령님이 나오시고 아버지에게서도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러한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담고 담기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조차도 부모의 마음에 담길 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기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맹수가 되어갑니다. 내 마음 안에 담긴 아기와 실제로 존재하는 아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사냥을 한 대가를 아픔으로 치르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서도 이 마음의 공백에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사랑해서 마음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사랑은 성립되지 않기에 맹수를 사냥해서 우리에 가두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을 담게 된 마음에는 기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담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담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참여할 수 없다면 기쁨도 없습니다.
담아야 될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담고 나니 기쁨은커녕 고민과 괴로움

만 생깁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에 그로부터 생겨난 괴리감이 맹수처럼 마음을 할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쁨이 생겨나더라도 금세 사라지기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마약과 같습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에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말고도 좋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충성의 동산, 순종의 동산, 평화의 동산, 평강의 동산, 물댄 동산, 생명의 동산이라고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의 동산이나 형통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발생하는 충만한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굳이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담고 담기는 사랑을 통해 기쁨이 넘치셨기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턱 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인격의 증거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셨고, 28절에서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버리셨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셨더라도 아버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중단하시고 아버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가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판단만을 받으셔서

사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일치시키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이키시고자 또 다른 선악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므로 주체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심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담은 죄악 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악은 비틀림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돌아가서 세상을 향하게 된 비틀린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림으로 생겨난 고통을 주님께서 모두 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존재방식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되리라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간적인 기쁨 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괴로움이 오는데도 사람은 그 순간적인 기쁨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란이라는 의미를 가진 허물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심의 관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중독된 마음의 허물과 비틀려진 죄악에 물든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삼위일체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설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뻐진 상태에서 세상을 대하는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람을 사냥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뻐진 마음은 어떠한 사람도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필요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려 하셨던 이웃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쁜 마음이 되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사업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이전에는 배우자와 내가 우리였고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되심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심지어는 내 몸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관계하게 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우리로 묶이면 삼위일체 특산품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기존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듯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원하는 반란적 기질, 비틀린 기질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다시 이러한 기질이 살아납니다. 홍해 물이 갈라지고 억제되어서 벽을 만들었다가 다시 바다로 덥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반란과 비틀림의 기질이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나는 이웃에 대해 진정한 이웃사랑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담겨야 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담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반란적 허물과 비틀어진 죄악이 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마음에 이 세상을 담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담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